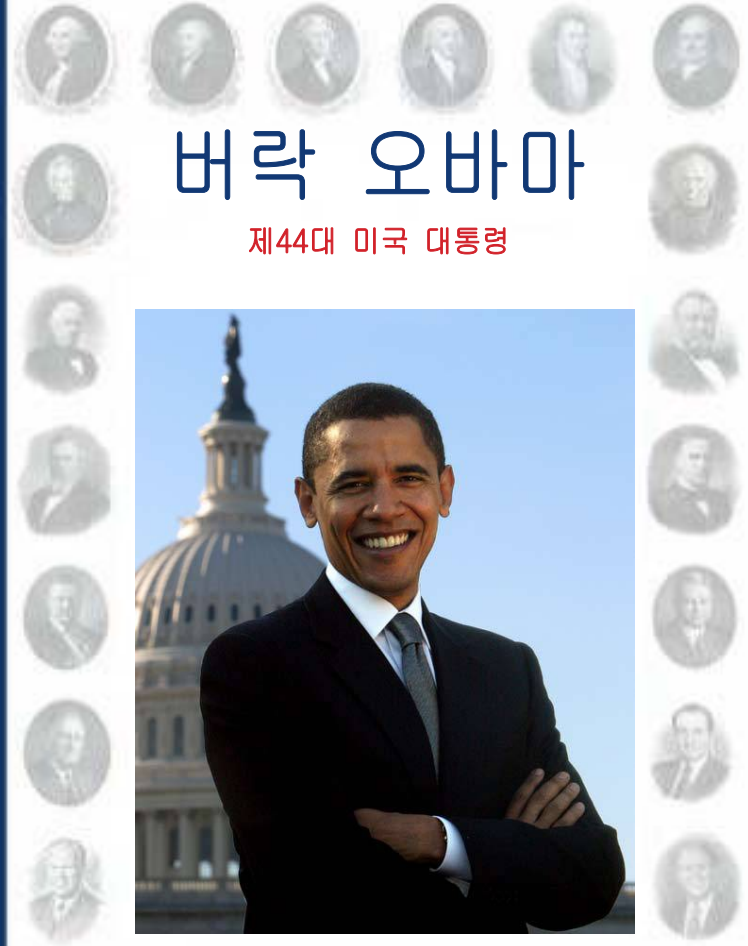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 Bureau of International Information Programs

미 국무부 / 국제정보프로그램국



버락 오바마

제44대 미국 대통령



오바마의 말

버락 오바마는 아래에 그 일부가 발췌된 연설을 통해 그의 삶에서 자신이 “나를 넘어 세계를 주목하기 시작했던 시기와 변화의 기수가 되기를 희망하는 그의 열망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 연설은 2008년 5월 25일 코네티컷 미술대원에 있는 웨슬리언 대학 졸업식장에서 행해졌다.

저는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저는 미국의 빈곤과 의료 문제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는 변화를 일으키는 풀뿌리 운동에 몸 담고 싶다는 생각에 미친 듯이 사로잡혔습니다.

그 당시 제가 알고 있던 모든 단체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전 어느 날 사교의 시무스 사이트에 있는 어느 작은 교회 단체로부터 저절로 광범위한 지역 경치가 폐쇄된 지역사회를 위해 조직활동으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와 조부모님은 제가 법학대학원에 진학하기를 원했습니다. 졸업 동기들은 월스트리트에서 직장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안적으로 이 교회 단체에서는 연봉 1200달러에 남아있는 차액으로 2000달러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사교에 제가 아는 사람이었고는 한 명도 없었고 조직활동의 역할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감조차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JFK(존 F 케네디 대통령)가 역설한 소명의식이나 시민운동 역사에서 깊은 감동을 받은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무스 사이트에 도착하자 행진도 격정적인 연설도 없었습니다. 당번 제철공장의 쓸쓸한 그늘 아래 수많은 많은 주민들이 힘겹게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처음에는 이렇다 할 할의 진척도 없었습니다.

지역사회 지도들과 조직폭력 문제를 양해하기 위해 소중했던 첫 모임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층을 기다리고 또 기다린 끝에 한문의 노인들이 회관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애절한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여기 마시고 계십니까?”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결국에는 진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고 골목골목으로 범위를 넓히면서 지역사회의 동장을 이물었고 유전자 등록을 유도했고 병과후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일과를 늘리고 주민들이 인공으로의 존엄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단순히 다른 사람을 돕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가 자를 포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의미 있는 시민의사와 제 인생의 방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저 자신의 불가능한 것 같았던 이야기 마미라는 거대한 이야기 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제44대 미국대통령



목차

버락 오바마 ~ 미국인으로서의 삶	2
버락 오바마의 미래 비전	10
오바마 가족	12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	14

버락 오바마 ~ 미국인으로서의 삶

버락 오바마는 남다른 이력과 대선에서의 승리로 미국 정치사의 새 장을 열었다.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은 그 어떤 전직 대통령과도 닮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 케냐 출신의 아버지와 미국 대륙 한가운데 출신의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오바마는 그가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해인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 기조연설을 통해 일약 국민적인 관심을 끌게 됐다. 그로부터 단 4년 만에 당내 거물급 후보들과 경쟁하여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되었으며 마침내 공화당 대선 후보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을 꺾고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세련된 어투와 청중을 흥분시키는 유창한 언변, 그리고 젊은 유권자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능력과 인터넷을 활용한 진보권 선거 전략을 두루 갖춘 오바마는 21세기가 요구하는 후보 그 자체였다. 대선 유세에서 오바마는 두 가지 목표에 초점을 맞췄다. 즉 기존의 국정 운영 방식에 변화를 불러오고 다양한 이념·사회·인종적 배경을 가진 국민들을 공동의 이익 아래 하나로 묶는 것이었다.

오바마는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진보적인 미국이니 보수적인 미국이니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미합중국만이 존재할 뿐”이고 “흑인들의 미국이니 백인들의 미국이니 히스패닉들의 미국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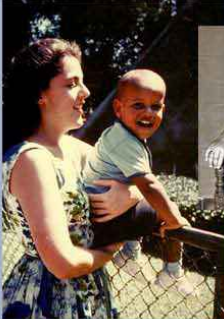
아시아인들의 미국이니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미합중국만이 존재할 뿐”이라면서 “우리는 성조기에 충성을 맹세한 같은 민족이며 모두가 미합중국을 수호한다”고 역설했다.

유년기

오바마의 양친은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모친인 앤 던햄은 캔자스주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성장했다. 가족이 하와이로 이주한 후 그녀는 케냐 출신 장학생으로 하와이 대학에 재학 중이던 버락 오바마 1세를 만났다. 두 사람은 1959년에 결혼식을 올렸고 1961년 8월 4일

호놀룰루에서 버락 오바마 2세가 태어났다. 2년 후 그의 부친은 가족을 남겨둔 채 하버드 대학원에 진학했고 그 후에는 케냐 정부 소속 경제학자로 자리를 잡았다. 어린 오바마는 열 살 되던 해에 자신의 생부를 딱 한 번 만날 수 있었다.

오바마가 여섯 살 되던 해에 모친은 인도네시아 정유회사의 종역과 재혼했다. 그의 가족은 인도네시아로 이주했으며 오바마는 수도 자카르타에서 4년간 학교를 다녔다. 결국 하와이로 되돌아온 오바마는 외조부모와 함께 살면서 고등학교를 마쳤다.



어린시절 오바마와 그의 어머니 앤 던햄 (1963년 무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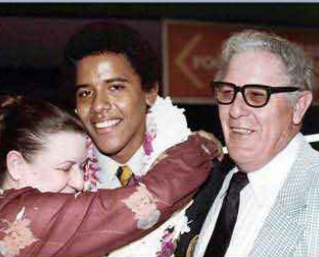
9세 되던 해 오바마와 그의 어머니, 양부 롤로 소에토로, 이복여동생 마이(인도네시아)



오바마(10세)와 케냐인 아버지 버락 오바마 1세



버락 오바마(사진 중앙)와 고등학교시절 농구팀 (1977년 하와이)



조부모인 매들린 페인 던햄, 스탠리 아버 던햄과 짝은 졸업식 사진 (1979년 하와이)



뉴욕컬럼비아 대학 재학시절 (1983년 무렵)

오바마는 자신의 첫 자서전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Dreams from My Father)』에서 당시만 해도 미국 사회에서 여전히 생소하게 취급되던 다문화 가정에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어느 청소년의 사춘기와는 전혀 다른 시기였음을 회고하고 있다. 이처럼 흑백 문화에 고루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이 이후 오바마가 다양한 시각을 아우르면서 정치에 폭 넓은 비전을 도입하게 된 자양분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법학대학원 재학 시절 오바마의 동거했던 카산드라 버츠는 『뉴욕커』 잡지 필진인 마리아 맥파쿠하와의 인터뷰에서 “바락은 걸보기에 모순적인 현상들을 결합하여 일관성을 부여하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면서 “집에서는 백인들의 보호를 받으며 자라다가 바깥 세상에 나가서는 흑인으로 비쳐지는 현실에서 비로탄 결과였다”고 회상한다.

오바마는 하와이를 떠나 LA에 있는 옥시덴털 대학에서 2년간 수학했다. 이후 뉴욕으로 이주하여 1983년에 컬럼비아 대학에서 예술학사 학위를 받았다. 2008년 연설에서 오바마는 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는 변화를 일구는 풀뿌리 운동에 몸 담고 싶다는 생각에 미친 듯이 사로잡혔다.”

공직으로의 진출

오바마는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찾아 뉴욕 건설업체에서의 금융전문직 필자 자리를 포기하고 시카고로 이주했다. 시카고에 도착한 오바마는 제조업 중심지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모하는 과정에서 큰 타격을 입은 빈곤층 흑인들의 거주 지역이었던 사우스사이드를 대상으로 어느 교회단체의 지역사회 조직활동가로 일했다.

몇 년 뒤 오바마는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 “그곳에서 내가 받은 교육은 그 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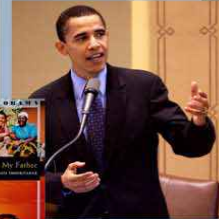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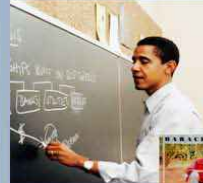
지의 다른 어떤 교육보다 유익했으며 그곳에서 나는 기독교 신앙의 참된 의미를 배웠다”고 말했다.

오바마는 지역재개발이나 직업훈련, 환경정화사업 등 사우스사이드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구체적인 실적을 쌓았다. 하지만 오바마는 조직활동가의 주된 역할이 일반 시민의 정치적·경제적 권한을 확대하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유도하는 촉매제로서의 임무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했다.

조직활동가로 3년을 보낸 오바마는 소외된 지역사회를 진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차원의 입법과 정치 분야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리하여 하버드 법학대학원에 입학한 오바마는 흑인으로는 최초로 유서 깊은 『하버드 로 리뷰(Harvard Law Review)』지의 편집장으로 선출됐으며 1991년에 동 대학원을 우등으로 졸업했다.

오바마의 대선 전략가로 일했던 데이비드 액슬로드는 이처럼 화려한 학력을 가진 오바마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오바마는 제2의 고향인 시카고로 돌아와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시카고 대학에서 헌법을 강의했다. 1992년 오바마는 역시 하버드 법학대학원 출신인 미셸 로빈슨과 결혼했으며 빌 클린턴 등 민주당 후보를 지원하는 유권자 등록 업무를 맡기도 했다

공직을 향한 강한 의지를 키워가던 오바마는 1996년에 처음으로 선출직 의원 후보로 출마했고 일리노이주 상원의 시카고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됐다. 선거 출마는 여러 측면에서 그의 초창기 지역사회 조직활동가 경력과 논리적인 연관성을 맺고 있으며 오바마는 이처럼 폭 넓은 시각의 많은 부분을 자신의 정치적인 비전—시민 지향적인 풀뿌리 운동가이자 폭 넓은 기반을 갖춘 건설자로서의 정치인을 추구하는—도입했다.



메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법학대학원 재학시절 (1991년 무렵) 시카고 유권자 등록 장면 (1992년 무렵)

바락 오바마와 미셸 오바마 부부의 결혼식 사진 (1992년 10월 18일)

시카고 법대 헌법 수업 장면 (1993년 무렵)

일리노이주 상원 시카고 지역구 의원으로 선출된 오바마. 오바마는 3선 의원을 지냈다.

2000년 하원 선거에서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있는 오바마와 그의 가족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 (1995년 출간)

당시 오바마는 “백인, 히스패닉, 아시아계를 포함하는 모든 노동자의 경제적 불안을 확확하는 보다 근본적인 경제적 요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 인종차별만이 우리의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주장하는 흑인이 있다면 그는 문제를 심각하게 오인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주 상원에서 8년간 의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오바마는 선거자금법 개혁, 저소득 근로자 세금 감면, 주 형사제도 개선 등의 업적을 남겼다.

중앙 정치 무대

2000년에 오바마는 민주당 현역 하원의원인 바비 러시를 상대로 경선에 나섰지만 고배를 마셨다. 경선에서 러시 의원에게 참패한 뒤 의기 소침한 상태에서 일리노이주 의회를 벗어날 계기를 찾던 오바마는 아내 미셸의 제안을 받아들여 자신의 정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오 아니면 도’의 심정으로 상원 출마를 결심했다.

2004년도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선거는 공화당 현역 의원이었던 피터 핏제랄드가 직전 해에 출마 포기 의사를 선언하면서 치열한 각축장으로 변모한 상황이었다. 민주당 후보 7명과 공화당 후보 8명이 각 당 프라이머리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 경합을 벌이는 형국이었다. 오바마는 나머지 후보 6명의 표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53퍼센트—표를 확보하면서 손쉽게 민주당 후보로 지명되었다.

당시 공화당이 전체 상원 의석 100석 중 51석을 차지하여 아슬아슬하게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11월 선거에서 과반수 의석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일리노이주 선거 결과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었다(실제로는 2006년에 가서야 다수당이 되었다). 당시 민주당 지도부가 뛰어난 연변을 가진 오바마에게 정당대회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김으로써 그의 상원의원 선거운동을 지원하고자 했고 존 케리 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바마에게 매우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바마가 정당대회 기조연설자로 지명될 수 있었다. 당파적 분열을 초월해야 할 당위성과 냉소의 정치가 아닌 ‘희망의 정치’에 대한 요구를 세련된 언어로 역설한 오바마의 연설은 정당대회 참석자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언론에서 그를 민주당의 떠오르는 별로 주목하게 만드는 계기를 마련했다. 오바마는 그 해 상원의원 선거에서 70퍼센트를 득표하면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머쥐었다. 비록 일리노이주 공화당 조직이 거의 와해되다시피 했다는 점이 암습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오바마의 승리는 선거구 내 102개 카운티 중 93개를 휩쓸었고 백인 유권자들로부터 2대1 이상의 일방적인 지지를 획득했다는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도 인상적인 결과였다

전통적인 인종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신세대 정치인으로서의 오바마의 명성은 꾸준히 높아졌다. ‘뉴욕거’ 잡지에 실린 인물 소개란에서 윌리엄 피니건은 “대화 상대방의 언어에 미묘

하게 파고 들어가는” 오바마의 능력에 주목하면서 오바마가 “미국인들이 표현하는 모든 언어를 이해한다”고 적고 있다.

오바마 자신은 백인 유권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오바마는 “나는 그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그들은 내 조부모님이요……그들의 방식, 그들의 감수성, 선악에 대한 그들의 가치관—이 모든 것들이 내게는 친숙하다”고 말한다.

상원의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오바마는 민주당 내 진보 세력과 뜻을 같이 하여 각종 표결에 참여했다. 오바마의 트레이드마크 중 하나인 이라크전 반대 정책은 전쟁이 발발하기도 전인 2002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오바마는 어떠한 군사적 행동이건 “원칙이 아닌 정치”에 근거하여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바마는 의원 윤리규범 강화, 전역군인 보호제도 개선,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의 분야에서도 의정활동을 벌였다.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오바마 주 상원의원(2004년7월)	상원의원 후보자 자격으로 민주당 정당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행한 오바마 (2004년 7월 24일)	2004년 선거일 당일 오바마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후보와 그의 아내 미셸 그리고 두 딸 사(사신 앞쪽)와 말리아	오바마 상원의원과 조 바이든 당시 상원의교 관계위원회 위원장	오바마와 케냐인 조모 시라 후세인 (2006년 8월 케냐 코켈로 마을)	1998년 미대사관 폭파사건 희생자 위령비에 헌화하고 있는 오바마 가족 (2006년 8월 · 케냐 나이로비)	대선출마를 선언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와 그의 가족 (2007년 2월)
--	--	--	-----------------------------------	---	--	--

『담대한 희망(The Audacity of Hope)』 (2006년 출간)

대선 출마

미국 내 50개 주 전역에서 선거 혹은 당원대회를 거치면서 치러진 2008년 민주당 프라이머리 경선은 여러 가지 면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 과거에도 흑인 후보와 여성 후보가 경선에 참가한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최종 후보 두 명이 흑인과 여성이었던 예는 없었다. Barack 오바마를 비롯한 7명의 경선 참가자들이 민주당 대선 후보지명을 위한 선거운동 조직 작업에 착수하던 2007년 무렵 각종 여론 조사에서 오바마는 강력한 대권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뉴욕 상원의원에 이어 줄곧 2위에 머무르고 있었다.

하지만 오바마는 전국적인 풀뿌리 유세 조직을 수립하고 인터넷을 통해 선거자금을 모금하면서 경선 초반부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고한 지지 기반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높은 인지도와 효율적인 유세 조직 그리고 주 차원에서 민주당 지도부의 지원을 등에 업은 클린턴을 상대로 오바마 캠프는 그러한 이점들을 상세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전략을 고안해냈다.

즉 프라이머리가 아닌 당원대회에서 대의원을 선출하는 주를 타겟으로 정하고 전통적으로 선거에서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소외 주들을 공략했다. 이 전략은 각 주의 승자에게 정당대회 대의원 전체 혹은 대부분을 배정하는 공화당 방식과 달리 각 후보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해당 주의 정당대회 대의원을 배정하는 민주당 비례 대의원 방식을 최대한 활용한 결과였다.

2008년 1월 3일 최초 경선 지역이었던 아이오와주 당원대회에서 클린턴에게 압승을 거두면서 이 전략은 효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아이오와주에서의 승리는 게임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다. 『워싱턴포스트』는 “클린턴을 누르면서……전달할 메시지와 조직력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갖춘 유일한 후보인 오바마가 클린턴의 이성을 위협할 수 있는 맞수로 부상하면서 경선의 행방이 뒤바뀌었다”고 논평했다.

이 전략은 클린턴을 상대로 동률을 이루고 남서부 농업 주들을 휩쓴 ‘슈퍼 화요일-2월 5일 전국 22개 주에서 동시에 실시된 경선-에 다시 한번 효과를 거뒀다. 2월 한달 동안 10곳에서 실시된

경선을 연속으로 석권하여 클린턴이 결코 따라 잡지 못할 대의원 수를 확보하면서 이 전략은 또 다시 효과를 거뒀다.

대통령으로서의 오바마

Barack 오바마는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가장 나이가 어린 편에 속한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를 형성한 1946~1964년 기간 말엽에 태어난 오바마는 변화를 예고했던 시기인 1960년대에 성인이 된 첫 번째 대통령에 해당한다. 오바마가 성장했던 사회의 분위기는 이전 베이비붐 세대의 시각을 형성했던 사회적 격변기인 1960년대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오바마는 전후 세대 출신의 구시대 후보들이 격돌했던 지난 2000년과 2004년 대선을 두고 “베이비붐 세대가 국가 차원의 무대에서 벌이는 한 편의 시크드라마-오래 전 몇몇 대학 캠퍼스에서나 일어났을 법한 구원(奮鬥)과 복수를 주제로 한 이야기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곤 했다”는 자신의 생각을 밝힌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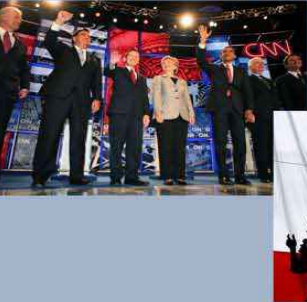
『뉴욕』 잡지 필진인 미라사 맥파쿠히는 오바마가 기성 정치계에서 어필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한 가지 가설을 제시한다. 그녀는

“오바마는 상원에서 가장 진보적인 투표 성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그러면서도 항상 공화당 의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이유는 아마도 그가 진보적인 목표들을 보수적인 언어로 표현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맥파쿠히는 “오바마의 역사관과 전통을 존중하는 자세, 그리고 세계는 어떤 방식으로든 변하지만 그 속도는 매우, 매우 느리다는 그의 회의론적 태도를 감안할 때 오바마는 극히 보수적”이라고 분석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정치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오바마는 많은 국민들이 국가의 향방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시점에 대통령에 당선됐다. 『워싱턴포스트』 정치칼럼니스트인 E. J. 디온은 오바마의 당선과 미국의 시대정신 간의 친재일어의 만남을 다음과 같이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다.

경험이 아닌 변화가 시대의 소유이다. 선거 유세에서 가장 중시된 덕목은 세세한 완벽함이 아니라 변화이었다. 줄곧된 날들로의 회귀가 아닌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이 가장 중요한 약속이었다.



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 TV 토론회에 참가한 오바마(우측에서 세번째)(2007년 11월)

아이오와주의 작은 마을인 피오르에서 유세 중인 오바마. 오바마는 2008년 1월 3일에 실시된 아이오와주 당원대회에서 승리했다.

자신의 지지들과 슈퍼 화요일 승리를 자축하고 있는 오바마 (2008년 2월 5일)

경쟁자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과 토론을 받고 있는 오바마

2008년 6월 3일 유세장에 모습을 나타낸 Barack 오바마와 Michelle 오바마. 오바마는 이날 프라자거리로 민중당 대통령 후보 자리에 필요한 선관대회 대의원을 확보했다.

유세 향풍인 안에서 지지들과 담화 중인 오바마

2008년 8월 28일 민주당 전국대회에서 각자 이름을 동원하고 무대에 오른 Barack 오바마 대통령 후보 자명자와 조 바이든 부통령 후보 자명판

버락 오바마의 미래 비전

2007년 4월 23일 시카고국제문제위원회에서 행해진 '미국의 순간(The American Moment)' 연설문에서 발췌

저는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책임이야말로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1세기에 그러한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국가 안보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그러한 비전은 과거의 교훈들을 참고하되 구시대적 사고에 얽매어서는 곤란합니다.

오늘날처럼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미국 국민의 안전은 다른 모든 나라 국민의 안전과 불가분의 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마약 밀매와 부패로 남미 지역의 민주주의가 흔들리면 미국에도 파급효과를 미칩니다. 빈곤한 인도네시아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AI에 감염된 닭을 시장에 내다 파는 것 역시 먼 나라의 문제로만 간주할 수 없습니다. 파키스탄의 종교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증오를 가르치면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위협이 됩니다.

글로벌 테러전 전염병이건, 혹은 급격한 기후변화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이건 간에 21세기 초엽에 우리가 직면한 위협들은 더이상 국경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상당수 미국 국민들은 국내로 관심을 돌리고 국제 문제에 있어서의 미국의 리더십을 포기하고 싶다는 유혹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것처럼 미국의 리더십을 포기하는 행위가 우리가 결코 범해서는 안 될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홀로 이 시대의 모든 위협에 맞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없이는 세계도 그러한 위협에 맞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계로부터 달아나서도, 세계를 위협하여 굴복시키려 해서도 안 됩니다—우리는 행동과 모범으로 세계를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세계 주인의 안전을 확대하는 21세기 군대를 양성함으로써 세계를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를 위협하는 무기의 확산을 멈추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집결함으로써 세계를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는 공동의 과제를 완수하고 공동의 위협을 척결하는 데 필요한 파트너십과 동맹을 구축하고 강화함으로써 세계를 이끌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희망의 등불이 자신들의 앞길을 비추어주기만을 기다리면서 외진 곳에서 절망 속에 단절된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춤으로써 세계를 이끌어야 합니다—오직 증오에 몸을 맡긴 채 온몸에 폭탄을 매단 이들이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백만 명의 주민들은 다른 길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광인의 손에서 대륙을 해방시키기 위해 도움을 준 나라입니다. 우리는 분단된 도시의 용기 있는 시민들에게 우리도 베를린 주인이었다고 말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수 세대에 걸쳐 세계 각지에 우리 젊은이들을 평화 대사로 보낸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시아 전역의 쓰나미 이재민들에게 구호의 손길을 보낸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끌어야 할 순간입니다—우리 세대가 위대한 미국의 서사시를 새롭게 창조할 시간입니다. 그래야 언젠가 후손들에게 지금이 우리가 중동 평화를 일구어내는 데 일조한 시기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맞서고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무기를 감축한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구상 외진 곳의 주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한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 세대에 걸쳐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지친 여행자들이 우리 문 앞에서 기회와 자유 그리고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끈 미국을 새롭게 변모시킨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7년 4월 23일 시카고국제문제위원회에서 연설하고 있는 오바마(사진)

오바마 가족



2008년 7월 4일 몬태나 주 뷰트에서 독립기념일 퍼레이드를 관람하고 있는 오바마 가족. 사진 왼쪽부터 미셸, 사샤, 버락, 말리아.

오바마 가족은 흑인으로는 최초로 백악관에 입주하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과 그의 아내 미셸은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에 갖는 역사적인 중요성과 수많은 미국 국민들에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다. 미셸 오바마는 선거 지원 연설에서 만약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나 역시도 무슨 일이든 상상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한, 시우스스케 콜라이나주스의 한 미장원에서 만난 어느 열 살짜리 소녀를 골라 언급하곤 했다.

미셸 오바마는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그 아이는 바로 나였을 수도 있다”면서 “슬

직히 말해서 나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이다. 통계적인 예외에 속한다. 나는 흑인 여자인데다가 시카고 시우스사이드에서 자랐다. 프린스턴 대학에 갈 수 있었지 않았느냐고? 아니었다. ……다들 하버드 법학대학원이 내게는 과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결국 입학했고 좋은 성적을 올렸다. 그리고 나는 분명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오바마 영부인의 결혼 전 이름은 미셸 로빈슨으로 시카고의 어느 노동자 가정에서 성장했다. 그녀의 부친은 시창 수도국에 근무하면서 민주당 선거구 책임자를 지냈고, 그녀의 모친은 전업주부로 오빠 크레이그와 미셸을 키웠다.

미셸 로빈슨은 우등생이었고 1985년에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했다. 학부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부전공으로 흑인학을 공부한 그녀는 졸업 후에 하버드 법학대학원에 들어갔다.

미셸 로빈슨은 시카고의 시들리앤오스틴 법무법인에 근무하던 1989년 하기 인턴으로 일하던 오바마의 멘토로 배정되면서 미래의 남편을 처음 만났다.

장래의 대통령은 그녀에게 자신이 주도하던 지역사회 조직활동 모임에 참석해볼 것을 제안했다. 그녀는 그 제안을 수락했고 모임에 참석하여 오바마가 참석자들을 상대로 “현실 속의 세계와 미땅히 존재해야 할 세계” 사이의 간극을 없애는 것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회고했다.

미셸 로빈슨과 버락 오바마는 교제를 계속했고 1992년 결혼식을 올렸다. 오바마 부부는 둘 다 공직을 향한 열정을 품고 있었고 경력의 많은 부분을 공직에 할애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법무법인을 그만둔 미셸 오바마는 시카고 시장에서 여러 보직을 맡았으며 청년층의 공직 분야 진출을 돕는 단체인 ‘퍼블릭 앨리아스-시카고의 초대 집행이사를 지냈다. 최근까지 시카고 대학 메디컬센터에서 지역사회 및 의사 담당 부사장으로 재직했다.

뉴저지주 리더 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미라 구틴 박사는 “그녀는 분명 백악관이 제공 할 발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인물로 보인다”면서 “그녀는 현명하고 명쾌하며 관리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한다.

버락 오바마와 미셸 오바마는 공직에 대한 두 사람의 열정과 전문적인 경력 그리고 성과물이 향후 과제들을 해결해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대통령이 되어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버락 오바마의 희망의 이면에는 그의 어린 두 딸 말리아(1998년생)와 사샤(나타샤를 줄여 부르는 이름 2001년생)가 있다. 둘은 1976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취임했을 당시 아홉 살이었던 에이미 카터 이후 최연소 백악관 입주자 기록을 세우게 된다.



(위)2008년 8월 25일 민주당 전당 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는 미셸 오바마. (아래)오바마 가족은 대선 유세 기간 중 많은 시간을 함께 여행했다.

오바마는 상원의원 재임 시절 어느 시카고 교회에서 행한 아버지의 날 연설을 통해 “내 삶은 두 딸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면서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한다. 우리 아이들에게-우리의 모든 아이들에게-모든 나는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자신의 소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란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이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우리가 떠난아야 할 중요한 책임이다”라고 말했다.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



2008년 8월 28일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석한 조 바이든 부통령 후보 지지자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 후보 지지자.

“나는 발칸 지역의 인종학살을 종식시키는 과정에 일조하고 여성폭력근절법을 통과시킨 업적을 내 공적 생활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들로 생각한다.” 조지프 R 바이든 부통령은 상원의원 재임 시절이던 2007년에 펴낸 자서전 『 지켜야 할 약속: 인생과 정치에 관하여(Promises to Keep: On Life and Politics)』에서 위와 같이 회고하고 있다.

바이든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러한 평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이든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일랜드계 가톨릭 신자인 바이든은 펜실베이니아주 동북부에 위치한 노동자 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도시인 스크랜턴의 어느 평범한 가정에서 1942년에 태어났다. 그의 모친은 전업주부였고 부친은

자동차 영업사원이었다. 바이든이 열 살 되던 해에 그의 가족 전체가 델리웨어주로 이주했다. 바이든은 가족 중에서 처음으로 대학을 졸업했으며 뉴욕에 있는 시라큐스 대학 법학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정치인으로서의 바이든은 1972년 29세 때 델리웨어주 상원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바이든이 상원의원으로 취임하기 불과 몇 주 전에 그의 아내와 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두 아들은 목숨은 건졌지만 중상을 입었다. (바이든은 1977년에 재혼하여 딸을 얻었다.) 두 번째 재앙은 1988년에 생명이 위협할 수 있는 뇌동맥류 판정을 받았을 때였다. 치료 과정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그는 7개월 동안 상원의원직을 떠나 있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누워서 보냈다.

상원의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바이든은 진보적인 성향을 보였다. 그가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호의적인 대우를 받았고 초당 적인 의정활동을 벌인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당론을 지지했다. 일례로, 워싱턴포스트의 조사에 의하면 바이든은 상원 의원으로 재임한 직전 2년간 96.6퍼센트의 비율로 민주당 당론을 따랐다. 뉴욕타임즈의 마이클 고든은 바이든이 “진보 성향을 가진 세계주의자로 널리 인정” 받았으며 “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때로는 무력 시위를 목적으로 그러한 필요성을 잠시 접어들 준비 역시 되어 있었다”고 평가했다.

바이든은 상원의원 활동 초기에는 시민의 자유나 법 집행, 인권 같은 국내 문제에 주력했다. 1975년에 상원 법사위원회에 처음 참가했으며 1987~1995년 기간에는 법사위원장을 맡았다. 이 기간 중에 바이든이 상원에서 달성한 가장 중요한 업적은 자신이 문인을 작성한 역사적인 여성폭력근절법(1994년)을 통과시킨 일이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성과 관련된 범죄의 근절을 위해 수십억 달러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은 전통적인 진보 진영과는 시각을 달리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 예를 들어, 바이든은 마약 관련 법률의 강화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또한, 바이든은 인권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면서도 학내 인종 균형 달성을 위한 강제비스 통학 조치에는 반대한 바 있다.

외교 분야에 대한 시각

바이든은 상원 내 외교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1975년 이래로, 바이든은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원 외교관계위원회에 속해 있으면서 2001~2003년과 2007~2009년에는 위원장을 역임했다. 2004년 상원 의원으로 선출된 버락 오바마는 외교관계 위원회에 배정 되어 바이든과 함께 일하는 동안 친분 관계를 맺었다. 오바마는 바이든이 전임 위원장을 지낸 유럽 소위를 맡았다. 하지만 중요한 외교정책 사안에 있어서 두 사람은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바이든은 이라크 침공

최종 결의안에 찬성했던 반면, 오바마(상원의원으로 선출되기 전)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 동료의원들과 자리를 함께 한 바이든 상원의원 (사진 우측 착석자)(1986년 8월)

하지만 바이든은 최종결의안 찬성에 앞서 공화당 소속 리처드 루거 인디애나주 상원의원과 공동으로 외교적 노력이 소진된 이후에만 군사적 행동을 승인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바이든은 자신의 법안이 거부된 후에 전쟁 승인 결의안에 찬성했다. 하지만 바이든은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침공 전에 추가적인 의회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는 수정안에도 반대했다. 바이든은 2005년에 자신이 이라크 결의안에 찬성한 것은 ‘실수’였다고 인정했다. 오바마가 바이든을 러닝메이트로 지명할 직후 두 사람이 자리를 함께 한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서 오바마는 바이든을 “중산층의 마음과 가치관에 굳건한 뿌리를 박고 있는 외교정책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바마는 바이든이 “부사-매케인 외교정책의 강력한 비판자이며 테러와의 전쟁을 이끌고 이라크전을 책임감 있게 종식시킬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목소리”라고 말했다.



미 상원의원(좌측부터 존 케리, 조지프 바이든, 찰스 헤이글-2008년 2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바이든은 상원 외교관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동안 세계 각지를 방문했으며 많은 외국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참모나 수석 보좌관 들은 물론 야당 지도자들과도 격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바이든은 무기통제, 핵확산, 니토 확장, 강대국간 대립구도, 제3세계와의 관계 등 중요한 현안들을 차관해왔다. 또한 글로벌 에이즈 구상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으며 탄소배출량 및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일찍부터 지원해왔다. (바이든은 이미 20년 전에 기후변화 법안을 최초로 제출했다.) 또한 바이든은 자유무역협정에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대선 의원이 된 바이든은 특히 아프리카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는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 정책에 오래 전부터 반대해왔다. 다른부분에서는 우월 시타를 종식시키기 위한 보다 강력한 행동을 지지한다.

전문가들은 1990년대 발칸 지역에서 무력 분쟁 해결을 목표로 활동했던 것을 바이든이 외교정책

분야에서 이룩한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간주한다. 바이든은 클린턴 행정부로 하여금 세르비아 지도자였던 슬로보단 밀로세비치에 대한 행동을 취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이 함께 모음을 보인 스포르팅스에서 오바마는 바이든이 "발칸 학살을 끝내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일조했다"고 치하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바이든은 보스니아 이슬람교도들을 대상으로 자행된 인종청소를 중단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의 개입을 촉구했다. 이후 바이든은 코소보에서 세르비아를 몰아내기 위한 니토 폭격에 찬성했다.

바이든은 1998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했다. 하지만 두 번 모두 실패했다. 오바마 진영은 바이든을 러닝메이트로 선택한 이유로 여러 가치를 들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외교정책 분야의 전문성과 업적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언급했다. 바이든은 기틀이 신자되는 최초로 부통령 자리에 올랐으며, 최초의 밀라워주 출신 부통령으로 기록됐다.

사진 © AP Images, 예야, 전역 커버사잔, 벵라 오바마 상원의원실 제공, 전역 및 후면 커버사잔(인쇄): 미 인쇄출판국, 4페이지(좌측): Time & Life Pictures/Getty Images, 제작 편집장: George Clark, 실무편집인: Ania N. Green, 기고기: Domenick DiPasquale, David Pitts, Kelly Bronk, 편집인: Rosale Targonski, 디자인: Tim Brown, 사진리서치: Ann Monroe Jacobs.

